

동북아시아 지역은 막대한 양의 에너지자원이 아직도 미개발 상태에 있으며, 현재 구상중인 이 지역의 에너지자원개발계획은 극동 러시아지역의 사하와 야쿠츠크 및 이르쿠츠크 천연가스 개발, 중국 Tarim지역의 유전 및 가스전 개발, 동중국해의 자원개발,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에너지 공동체 계획 등이 있다.

향후 이 지역의 에너지 자원 개발은 지리적 여건상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체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천연가스 파이프라인과 전력 송배전망 등의 기간설비가 건설될 경우, 역내 국가간의 에너지협력 증진과 동북아 통합에너지 체계의 구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은 극동 러시아 이르쿠츠크 지역 등 천연가스전 개발사업에 탐사권 확보 및 동북아 파이프라인 건설참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2010년 전후에는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이들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진출과 참여가 이루어질 경우 국내 중·장기 천연가스 수급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VI. 맺음말

국제적으로는 지구 환경문제, 주종 에너지인 석유의 고갈 문제,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에너지 수요 급증과 고급 연료 선호 추세에 따라 가스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국 도시가스 공급 배관망의 적기 건설과 인수 기지의 추가 건설 및 증설, 장기 공급원의 확보, PNG의 개발 및 공동 이용, 가스 이용의 안전성 등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LNG공급원은 도매 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와 30여개의 도시가스 사업자가 공급 중이거나 공급을 위한 시설을 건설 중에 있으며 가격 체계는 평균 공급 비용에 근거한 요금 수준 결정 방식에서 원가 위주에 입각한 요금 제도로 개선할 계획이다.

LPG산업은 천연가스 전국 배관망의 건설과 안전성 문제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며, 현재 3단계로 매우 복잡한 유통구조는 사업의 안정성과 안전관리를 확보할 수 있는 계열화 방향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가스 산업의 환경 변화 전망으로 전세계적으로 공기업의 시장경제 원리 도입으로 민영화가 계속 추진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 나라의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을 위하여 수동적인 도입 정책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으로 천연가스 프로젝트의 개발에도 적극 참여할 시기가 되었으며 저장 시설의 추가 재원 조달 문제도 자체 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천연가스와 관련된 기술은 하나의 부가가치 창출 사업으로써 이를 통한 천연가스 이용의 효율화도 기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마지막으로 가스 안전관리의 확보와 관련 산업의 발전 방향으로서 도시가스 사업자의 안전관리 투자를 의무화 시키고, 현행 LPG중량판매제를 체적판매제로 전환시킴과 아울러 GHP, 마이콤메타의 개발·보급, LPG용기의 바코드제 도입, GIS구축 등의 가스정책 및 기술개발에 대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